**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헌사할샤   |  |  |  |  |  | | --- | --- | --- | --- | --- | |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꼈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혜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낯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  |  | |  | |  |  | | | **[A]** | |  | |  |  | |  | |  |  | |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 정철, 『성산별곡』 -  \*소선 :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적선 :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고블 :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꿩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종\* 갈기 솔질 활활 솰솰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꽝꽝쌍쌍 박아 숭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굵으나 굵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 내여 시내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뚝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눌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종 :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 작은 바구니. |